

# 수영 축제 기간 '수영 영화'에 빠져볼까

광주독립영화관, 13~16일까지  
수영대회 성공 기원 '여름영화 특별전'  
'노브레싱' '4등' '인어전설' 등 4편 상영



영화 '노브레싱'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함께 즐기는 '수영 영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윤수안)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여름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수영을 주제로 한 4개 영화를 스크린에 올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영화 최초로 '수영'을 소재로 한 조용선 감독의 스포츠영화 '노브레싱' (13일)으로 막을 올린다. '노브레싱'은 수영 전문용어로 '수면에 얼굴을 댄 채 숨을 쉬지 않고 헤엄치는 영법'을 뜻하며, 수영 특유의 역동성과 함께 우상(이종석 분)과 원일(서인국 분)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다.

제주를 배경으로 서핑에 빠진 소년의 모습을 따라가는 최창환 감독의 '파도를 걷는 소년' (14일)도 상영된다. 난민 문제의 최전선이 된 제주도에서 외국인 취업 브로커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세 김수(박민규 분)가 서퍼 톱코(김현목 분)와 해나(김해나 분)에게 서핑을 배우며 점차 서핑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파도를 걷는'이란 제목은 실제 서퍼들이 서핑을 일컫는 말에서 비롯됐으며, 주연 박민규 배우는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제 부문에서 배우상을 수상했다.

정지우 감독의 '4등' (15일)은 재능은 있으나 만년 4등인 수영 선수 준호(유재상 분)가 1등에 대한 집착을 버리

지 못하는 엄마(이향나 분)로 인해 새로운 수영 코치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해피엔드', '은교'를 연출한 정 감독은 '4등'에서 현실 속 깊게 잠재돼 있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폐해, 갑압적인 체벌의 문제 등 이야기를 자신만의 색깔로 그려냈다.

마지막 16일은 오벌 감독의 '인어전설'로 대미를 장식한다. 수영과 발레가 혼합된 종목으로 '아티스틱 스위밍'

이라고도 불리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 전 싱크로나이즈드 국가대표 영주(전혜빈 분)가 제주 해녀들의 코치를 제안 받아 '제주 해녀 싱크로나이즈드 공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 초청작이자 제1회 제주독립영화제 개막작에 이름을 올렸다. 무료 관람. 문의 062-222-189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웠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세계수영대회·7월12일~28일) 이야기다.

10여 일간 떠난 독일 출장길, 현지에서 접한 세계수영대회 관련 기사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었다. 취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CNN을 켜면 스포츠 뉴스는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이나 워싱턴 테니스 대회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혹시나 하고 끝까지 시청했지만 역시나, 였다.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5대 메가스포츠로 꼽히는 이번 이벤트인 독일에서의 '존재감'은 도통 없었다. 물론 내가 모든 스포츠뉴스를

해 예산 지원에서부터 대기업 스폰서 유치, 행사 홍보 등 모든 면에서 후대를 받았다. D-100일이 임박한 시점에 서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의 속을 태운 건 예산확보였다.

실제로 대회위상으로 보면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에 비해 앞서지만 예산은 6170억원의 27% 수준인 2244억이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5.2%, 단일종목으로 비슷한 성격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비교해도 62.8%에 불과한 편이다. 말하자면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로 치러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그렇다고 여건 탓만 할 수는 없는 일. 광주는 이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 D-2일, 축제를 즐기자!

모니터한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은 수영인구와 인프라가 풍부한 전통적인 수영 강국이다. 때문에 체류기간중 광주세계수영대회 관련 뉴스를 적어도 1-2쪽 정도는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광고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막 준비 등을 소개하는 홍보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귀국길에서도 이런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출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서 여기 저기 둘러봤지만 수영대회를 홍보하는 광고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회 개막이 코앞인데도 너무나 '조용'했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결과일지 모른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3년 7월 바르셀로나에서 광주로 개최지가 결정된 이후 6년간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

대회를 성공시킨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다행스럽게도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 D-2일을 앞둔 현재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속속 선수촌에 입촌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평화의 물결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문화광주의 매력을 부각시킨 개막식과 다양한 특별기념전, 공연 등 예술이벤트로 꾸며진다. 특히 개막식의 주제인 '빛의 분수'는 미디어 아트와 전통문화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세계의 젊은이들이 광주에서 합류(合流)하는 감동의 무대로 펼쳐진다. 스케일 보다 '퀄리티'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광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축제의 완결은 즐기는 자들의 뒀일 터. 올 여름 세계 스포츠사에 기억될 '광주의 기적'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결핍에 증독돼 사랑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

김경희 작가 두번째 소설집  
'켄타우로스, 날다' 펴내



주인공은 제주도까지 가서 남편의 분신과도 닮았던 켄타우로스 그림을 해방시키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삶을 이어 가려는 애도의 행위로 다가온다.

이러한 모습은 '씨네데이'의 화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화자는 사고로 말을 잃은 후 섬진강 가에서 은둔하며 세계와의 관계를 거의 단절해버렸다. "당신들이 슬픔을 알아?"라는 '켄타우로스, 날다'의 물음처럼 주인공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추천사를 쓴 채희은 소설가는 "그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작가의식이 뚜렷하며 그것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낮게 깔아, 독자들이 그 향기를 하나하나 집어내어가며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고 평한다.

한편 부안 출신 김경희 소설가는 조선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광주문학상과 국제문화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새들 날아오르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예지 '남도문학' 여름호 나와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남도문학' 여름호(통권33)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죽음의 미학'을 다뤘다. 자유기고가 박종수 씨가 '죽음, 끝이 아니다'를 주제로 '준비된 죽음', '죽음-희망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 등과 함께 '선인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 등을 소개한다.

다른 특집 '세계문학기행 8'에서는 늘빛문화교육연구소가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반전반체제 작가이자 평화운동가다.

스탈린 시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어느 수인이 겪는 생활을 묘사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설로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으며 반소 작가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2019 남도문학상 수필부문 당선작 송형택 수필가의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하세요'를 비롯해 이성자 동화작가의 '물'의 등' 동시, 김복순 시인의 '그 여자', 고영금 시인의 '오늘 10' 등 작품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문화예술위, 공연예술 증장기 창작지원 26일까지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박종관·이하 예술위)는 2019 공연예술 증장기 창작지원 공모 접수를 26일까지 실시한다.

공연예술 증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년)을 통해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체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연간 지원한도액은 2억 원이다. 본 사업을 통해 공연단체는 매년 공모 신청과 심사를 진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컨설팅과 교육, 연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지원액 증감 및 지원 여부도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누리집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60-478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b>토산철학원</b>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b>학산운명감정원</b>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b>(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b>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b>클로버부동산</b> 북구 필운동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b>루팡닭강정</b>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헬싱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모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b>초대화랑</b>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b>그집고기</b>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시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b>태극익스프레스</b>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본위 ☎062)222-2424, 011-664-2202	<b>양지공인중개사</b>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b>무크광주세정점</b>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b>고흥나루터</b>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창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b>금강버티컬</b>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팩트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b>박당화랑</b>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b>석당화랑</b>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b>국수나무용봉점</b>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b>기담철학원</b>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